

# 전통문화관 서석당서 펼쳐지는 감동의 국악 무대

광주문화재단, 7일 토요일 상설공연 동초제 심청가·서용석류 아쟁산조 아쟁 유서정·소리꾼 조혜진 등 “국악으로 전하는 위로와 울림”

전통의 깊이와 예술가의 진심이 담긴 국악 무대가 찾아온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7일 오후 3시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아홉 번째 토요일 상설공연 무대를 선보인다.

3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공연의 첫 무대는 전남대학교 국악과 석·박사 과정을 졸업한 유서정의 ‘서용석류 아쟁산조’ 연주로 펼쳐진다. ‘서용석류 아쟁산조’는 서용석 명인이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기능 보유자인 정철호 명인



유서정



조혜진

에게 진양 12장단, 중모리 18장단, 중중모리 18장단, 자진모리 50장단을 전수한 후 그 위에 본인의 가락을 엮어 완성한 연주로 알려졌다.

서용석 명인은 서용석류 아쟁산조가 가진 극적 표현력과 탁월한 시김새를 호쾌하고 선이 굵은 표현력으로 풀어냈다. 애절함과 감정의 농도가 짙어 매우 격정적이며, 특히 남도 특유의 농밀하고 끈끈한 성음이 잘 표현돼 판소리에 가장 가까운 산조라는 평을 받는다.

아쟁연주자 유서정은 지난해 청춘사야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부나비즈 동인 및 철현금 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단한 내공과 섬세한 감성으로 전통 아쟁의미를 무대에 올라 선보일 예정이다.

두 번째 무대는 소리꾼 조혜진이

나선다. 그는 깊이 있는 소리와 탄탄한 기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판소리 전문 연주자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다. 조혜진의 깊이 있는 전통 판소리는 제22회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전주완창무대에서는 흥보가 완창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현재 사백연가 대표로 활동하며, 광주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기태희 씨가 선보일 무대는 동초 김연수가 창작한 것으로 알려진 ‘사철가’와 판소리 동초제 심청가 중 ‘환생’이다.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 후 용궁에서 육황상제의 은혜로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와 황후가 되는 장면을 다루는데, 이 부분은 심청의 효행에 대한 보상으로 작품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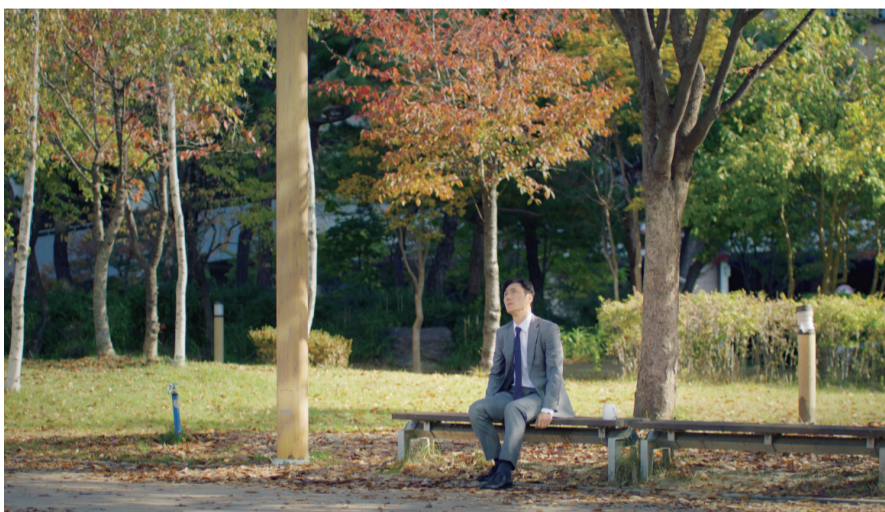
특히 이 대목은 심청의 희생과 그에 대한 신의 보상을 통해 효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후 심청이 황후로 환생한 뒤 아버지 심봉사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쓰는 내용으로 이어지며, ‘추월만정’ 대목으로 연결된다.

동초제는 동초 김연수 명창이 1930년대 초 5명 창인 송만갑·유성준·정정렬 등에게 배운 소리를 기반으로 오랜 창극 활동을 통해 자신의 판소리 이념에 맞게 완성했다. 사설의 정확성, 합리성, 연극적 면모와 더불어 음악에서 다양한 불입새와 기교의 사용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정교한 불입새에 동편제의 우림함이 더해져, 깊이와 감동을 한층 더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동구 전통문화관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토·토·전!’ (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을 슬로건으로 절기 관련 체험 및 연희·민속놀이, 한복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전통문화관의 모든 프로그램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체험과 공연 등을 모두 즐긴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다문화 태일이 증정된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오세섭 국립목포대 교수가 연출한 단편영화 ‘퇴근’의 한 장면.

목포대 제공

## 목포대 오세섭 감독 단편영화 ‘퇴근’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초청

국립목포대학교는 오세섭(사진) 교수가 연출한 단편영화 ‘퇴근’이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지역독립영화 쇼케이스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고 3일 밝혔다.

목포대 인문콘텐츠학부 문화콘텐츠학 전공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오세섭 감독의 ‘퇴근’은 지난 5월9일 폐막한 이번 영화제에서 총 3회 상영됐으며, 이 중 관객과의 대화(GV)가 포함된 두 차례 상영은 모두 매진을 기록했다.

‘퇴근’은 중년 남성 ‘영식’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 4050세대의 가족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구성된 독특한 서사 구조와 편집 방식이 관객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2023년 대전정보문화산업진



오세섭 감독은 관객과의 대화(GV) 현장에서 “연출 의도와 제작 과정을 관객들과 직접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 목포와 무안을 배경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영화 제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흥원 단편영화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24년 제14회 충무로단편 독립영화제에서 각 본상을 수상했고, 제8회 충북세계가족영화제에도 국내초청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목포·정기찬 기자

## 초여름의 정취를 ‘김남삼 가곡 발표회’로 만끽하다

8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작곡 40년의 서정 담은 신작 가곡 등

초여름의 정취가 깊어지는 6월, 감성 가득한 서정가곡의 감동을 전하는 ‘김남삼 가곡 발표회’가 열린다.

(사)문화예술협회가 주최하고 ‘디자인 상상’이 주관하는 ‘김남삼 가곡 발표회’가 오는 8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발표회는 작곡가 김남삼의 작곡 인생 40년을 기념해 그간 발표해 온 가곡 중 사랑받았던 작품과 신작 가곡을 포함한 12곡을 선보인다. 특히 KBS-FM ‘정다운 가곡’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그대 그리운 날’ (이선나 작사)을 비롯해 ‘포옹’, ‘달빛’, ‘눈빛’, ‘사랑의 비둘기 되어’, ‘노을 그대’ 등 주옥같은 서정가곡들이 연주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프라노 정지원·신은선, 바리톤 김치영·손승범 등이 출연해 감미로운 목소리를 선사하며, 피아니스트 이지은이 반주를 맡아 더욱 풍성한 음악적 감동을 전한다. 지역 문인 강성남, 김양화, 정호영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들도 소개될 예정으로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꾸며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이날 시니어동요합창단 ‘어깨동무’가 특별출연해 김남삼 작곡의 창작동요 ‘비 오는 오솔길’, ‘우산 속의 요정’, 국민동요 ‘새싹들이다’를 합창으로 선보인다. ‘어깨동무’는 지난해 제1회 전국 실버동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하고, 오는 20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열리는 제2회 본선 무대에 진출한 실력과 팀이다.

60세 이상 시니어들로 구성된 ‘어깨동무’는 ‘추동복(추억의 동요와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동요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정서적 교감을 끌어내며, 노인 고독사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연은 입장료 없이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관객들에게는 김남삼 작곡가의 작품집(악보집 및 음반)이 증정될 예정이다.

작곡가 김남삼은 “6월을 맞아 신작 가곡이 소개되는 발표회를 통해 서정가곡의 아름다움을 기다리는 애호가들에게 뜻깊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초여름의 낭만에 잠시 젖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 정보 소외계층 위해 직접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 운영

문화의숲도서관, 8월까지 노인·장애인 대상 6회 진행

문화의숲도서관이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

3일 문화의숲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빛남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케어링주간보호센터 광주분남점을 대상으로 각 6회씩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

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케어링주간보호센터 광주분남점에서는 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빛남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다음달 10일부터 8월21일까지 매주 목요일(1주 휴강) 운영될 예정이다.

‘찾아가는 도서관’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직접 찾아가 다양한 독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 프로그램은 △독서 통합놀이 △도서관계 독후감 상 △문화예술 체험 등 참여자들의 흥미를 높이고 독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됐다.

문화의숲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보 소외계층의 독서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합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